

해외 선교 캠퍼스 인도 뱅갈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28:19~20)

짧은 인생을 통해 나를 배운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결핍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부족한 것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성숙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훈련받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샘물인들에게도 고난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의 교육목표는 ‘성도의 자녀를 섬기는 예수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선교캠퍼스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인들은 해외선교캠퍼스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샘물인들은 선교지에서 영적, 물질적 결핍을 직접 보고 느끼고, 멀리 집을 떠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작은 부대끼를 통해 일상을 세워가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복음의 절대성과 긴급성,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 선교지의 안전에 대한 염려,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할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염려에도 불구하고 샘물인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샘물교회와 샘물중고등학교가 걸어온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을 감수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히 ‘믿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샘물중고등학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샘물인들의 영적 발돋움을 위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교육선교의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샘물배움공동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장대행 양석현



해외 선교 캠퍼스 인도 뱅갈로 Wise Vision Academy

해외선교캠퍼스 캠프일정

2019년~2021년
12월 하순~2020년 2월 중순 **9학년(선택)**

2022년~
3월~10월 **9학년(필수)**

주요일정 안내

더샘물학교 학부모 세미나

설명회 7월 21일(토) 오후 2시 / 더샘물교회(동탄)
주 제 왜 '기독교교육'인가?, 왜 '기독교학교'인가?
문 의 031-8055-8339, www.tsmcc.org

샘물중고등학교 '정시 입학 설명회'

대 상 현재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일 시 9월 1일(월) 오전 11시
문 의 031-714-7091, www.smca.or.kr

더샘물학교 '세계관 캠프'

대 상 1차 캠프(8.8) 7세~초등 2학년
2차 캠프(8.9~10) 초등 3~6학년

장 소 더샘물교회(동탄)

비 용 * 2차 참석자 교재 무상 제공(1만 5천원)

	선등록(~8/6)	당일등록
1차	1만원	1만 2천원
2차	2만원	2만 2천원

*점심 및 간식 제공

신 청 ①전화 ② www.tsmca.or.kr(7/20일 오픈 예정)

문 의 031-8055-8339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세대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땅의 현실에 아파하고, 회복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은혜샘물교회의 동역으로 샘물중고등학교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가 성숙을 다지고 계속해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 1 샘물배움공동체가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게 하소서.
- 2 교육관 건축공사가 막바지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성도들의 안전과 공사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남은 과정, 재정과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더 성숙하게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이 더욱 집중되게 하소서.
- 3 동탄에 분립하는 더샘물교회, 더샘물학교와 해외선교캠퍼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탄지역 기독교부모들이 '왜 기독교교육인가?', 왜 더샘물학교인가?'를 듣고 깨닫게 하소서.

NEWS LETTER

샘물뉴스레터

발행인 박은조 발행처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18.7.8 제3호

인사말

어느덧 무더운 여름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잠잠히 돌아보면 계절도, 학교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있습니다.

학업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로를 두고 씨름하는 순간순간이 참으로 더더 보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일상의 누적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깨진 조각, 필요 없는 조각처럼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예수 제자의 소망을 가지고 긴 경주를 함께 걸아가시는 학부모님, 힘겨운 기독교학교 운동을 지지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 샘물은 오늘도 뜨거운 여름날 믿음의 경주를 이어 갑니다. 생활문화수업문화를 혁신하는 일, 해외선교캠퍼스, 동탄에 세워질 더샘물학교를 준비하는 일, 새로운 교육관을 통해 샘물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일에 기도하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세대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음이 늘 감사합니다.

긴 여름, 샘물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히, 소망 가운데 목적있는 일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총괄이사 **권문영** 올림



지난 6월 5일 수원 화성에서 제2회 '샘물, 그리다'가 열렸습니다. '샘물, 그리다'는 샘물인들이 교실을 벗어나 탁트인 자연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대회입니다. '그리다'라는 대회는 '글입니다, 그림을 그린다. 그리워하다' 등의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단어 뜻처럼 마음이나 생각,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내면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대회의 목표입니다. 트인 공간감과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은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이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내면이나 글, 그림에 대한 은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시상은 글 부문과 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올해는 '샘물, 널 그리다'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는 2인칭의 인물만이 아닌 '자연, 시간, 감정, 경험, 하나님' 등임을 사전 교육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수원 화성 행궁 현장 스케치

Sketch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주변을 더 넓게 바라보고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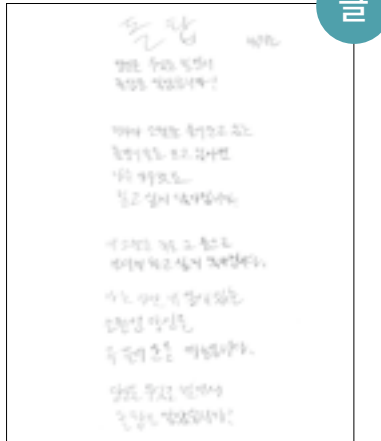


샘물 그리다 수상작

최우수상 | 중학교(그림), 고등학교(글)



장세연(중등부)



박희은(고등부)

우수상



그림 부문

강예원(7학년)

손민정(8학년)

신재은(8학년)

이예린(9학년)

최소미(12학년)

김주희(10학년)

곽재원(11학년)

글 부문

이상현(9학년)

이성민(8학년)

우정훈(11학년)

오지윤(12학년)

함서인(7학년)

조우석(10학년)